

# 국내 ESCO, 전략적 해외진출 관심 필요

- 제2회 ESCO컨퍼런스를 다녀와서

글 / 고근환 ESCO협회 사무국장

ESCO협회



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모든 국가의 ESCO 정보를 통합하자라는 일본의 제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실제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보 수집을 제안했다. 특히, 2009년에 개최 예정인 '3rd Asia ESCO Conference' 개최국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배석 국가들이 한국의 주관을 기대하는 분위기 였으나 추우논의로 일단락됐다. 곧이어 각국의 참석자들과 중국 ESCO협회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여 친목도모의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다음은 날짜별 컨퍼런스 내용이다.

## 컨퍼런스 첫째 날 ESCO 사업 각국의 현황 및 전망

**국** 가적으로 ESCO사업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문제의 해결이 화두인 시점에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The 2nd ESCO Conference"가 열렸다. 일본 ESCO협회가 주관하고 중국 ESCO협회인 EMCA가 협력하여 개최된 이 컨퍼런스에는 일본, 중국,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ESCO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ESCO협회와 (주)에너지기술루션즈가 참가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참가국 대표들은 사전회의를 열고 ▲ESCO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AEA-Net 웹페이지 구축 ▲뉴스레터 ▲2009년 ESCO컨퍼런스에 대

일본의 경우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ESCO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ESCO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ESCO사업에서의 기술표준화 미비와 파이낸싱의 어려움, 정부정책 등의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의 에너지절감목표,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노력,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한 재원마련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는 성과보증방법을 통한 ESCO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Monitoring & Verification (M&V)

M&V는 ESCO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국의 최대 관심사인 동시에 발전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주제라는 느낌을 받았다.

일본은 구마모토대학 등 일본 기업위주로 사례발표를 하였으며, 발표한 내용 중 “SET NEW BASELINE”은 사업 전 에너지사용량 설정 시 변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일본에서도 사업주와 협의 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등에서는 M&V 분야의 기술력 부족이 ESCO사업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되는 등 각국의 지속적인 기술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컨퍼런스 둘째 날

일본은 ESCO경험과 기술의 축적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공동 협조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예로, 일본 개발은행은 2006년 6월 현재 100여건의 ESCO사업에 약 \$12을 투자하고 있고, 일본 국제은행(JBIC)은 ESCO사업뿐 아니라 CDM사업에서의 역할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무상으로 일본 제품과 기술력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아시아 ESCO시장을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NAESCO의 Thomas K. Dressen은 다양한 ESCO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개발 및 M&V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리나라에서 참석한 (주)에너지솔루션즈 김범곤 상무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ESCO에 적용되는 금리’에 대해 질의 하였으나 “사업규모 및 기업의 신뢰도에 따

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다른 답변자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의 일반 상업용 자금의 경우 2.2%이나 ESCO 자금은 연 2%수준으로 금리 면에서는 우리보다 좋은 조건이라 생각된다.

또한 일본은 ESCO사업자의 수익성과 파이낸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ESCO사업과 CDM사업의 결합을 제안하였으며,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200여 명의 각국 ESCO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많은 정보교류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하지만 일본의 주도로 열린 이번 2차 컨퍼런스는 아시아의 중 주국으로써 아시아의 모든 ESCO 정보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일본이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개최한 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 ESCO의 참여도가 낮은 것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ESCO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내 ESCO도 국제화를 위하여 이러한 국제행사 및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과 중국의 ESCO 공동협력 협약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ESCO의 중국진출 선점의 기회를 놓쳤다는 데 아쉬움이 컸다.

Conference관련 발표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이니 ESCO사업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㉞